

「오카야마시장 메일 매거진(132)」 레이와 3년 2월 24일호

【미래를 지키고 개척하는 예산】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2월 15일에 레이와 3년도(2021년도) 당초 예산안 「미래를 지키고 개척하는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레이와 3년도는 시장 2기 집대성의 해이며 또한 오카야마시 제6차 종합계획·장기구상에 근거한 도시 만들기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후반기 중기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년도 예산을 생각함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코로나사태는 지역 사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과밀도시가 안고 있는 취약성과 경제 격차 등 사회 왜곡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쿄 과밀화의 시정이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라고 하는 SDGs의 이념의 실현이 지금까지보다 더 요구되고 있어 어려움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겨내고 또, 변화의 조짐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보다 좋은 사회를 다음 세대에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새롭게 가다듬었습니다.

신년도는 전년도에 이어 신종 코로나 대책을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 경제 활동과의 병행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시민을 '지키고' 또 지금까지의 중점시책을 착실히 진전시킴과 동시에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변화, 지방 회귀 분위기 고조 등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를 겨냥한 시책을 전개함으로써 오카야마의 미래를 '개척하는' 재기의 한 해로 나아가겠습니다.

레이와 3년도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3,441억엔(전년도 대비 0.2% 증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경상 경비의 억제나 사업의 진도 조정, 합병 추진채 등의 유리한 자원 활용 등으로 재정 수지 부족(재정 적자 폭)을 줄이는 데 힘써 시 재정의 저축인 기금의 사용도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장래의 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마쓰시타 고노스케 씨는 인재를 채용할 때 '운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운이 좋은 사람이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관계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예상 밖의 난관에 직면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유연함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에 도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 사람은 위기조차도 기회로 바꾸어 버린다고 고노스케씨는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전 인류가 코로나 시국(사태)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말을 우리에게 대한 응원의 말로 받아들이며,

저는,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에 과감히 도전해 오카야마의 미래를 「지키고 개척」해 나갈 생각입니다.

레이와 3년도 당초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PDF】 2019년 당초 예산의 포인트

<https://www.city.okayama.jp/shisei/cmsfiles/contents/0000028/28212/001.pdf>

【PDF】 레이와 3년도 당초 예산의 개요

<https://www.city.okayama.jp/shisei/cmsfiles/contents/0000025/25283/R3gaiyou.pdf>